



불자의 기본을 갖추자

수계는 물론 불교기초교육조차 받지 않은 불자들이 수도득하다. 범명도, 정기적인 법회 참석도, 다니는 재적사찰도 없는 불자들이 '불제자' 흉내를 내고 있다.

호지의 불사이지만 이 큰 불사의 시작은 바로 '나'를 혁신하는 불사임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교단의 그 구성원으로서 '나'인 신도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신도의 교육으로만 가능하다. 교육은 백년의 대계라고 하듯이 새로운 백년, 혹은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피교육자인 신도는 재적사찰을 결정하고 스님이 나 기존 신도에게 입문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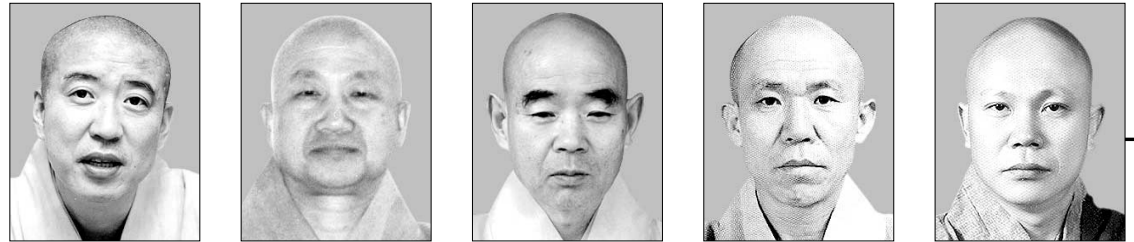
수계·기본교육 무시하면 '불제자' 형식 잘 갖춰야 귀의·정진 향상돼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불자로서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로서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는 교단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보를 호지해야 하고 보시 및 계율을 수지해야 하며 상구보리화중생의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신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며 불법을 배워 나간다면 제대로 된 불자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영석(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수좌 원웅 스님, 율주 종진 스님, 유나 원각 스님, 선원장 선각 스님

새 '자리'에서 화합가풍 솔~솔~

수행풍토 진작·종무행정 혁신 기대 각종불사 둘러싼 '논란' 향방 관심

현응 스님이 합천 해인사 새 주지로 추천됨에 따라 해인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중정이사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8월 30일 열린 해인사 하안거 해제법회에서 차기 해인사 주지로 현응 스님을 추천한 것을 비롯, 방장 유고시 방장을 대리하는 제2인자인 수좌에 원웅 스님, 율주의 대표인 율주에는 종진 스님, 유나에 원각 스님, 선원장에 선각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해인사 내 각 문중별 중요 직책 안배를 통한 융화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종무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차세대 주역의 필요성을 인식한 방장 스님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응 스님은 '해인'지 편집장,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신문사 사장을 역임한 차세대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해인사 관광도량화 중단과 바 큰불사문화 정착을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수경도 8월 31일 "현응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초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고, 불사검토협의회 합리적 진행을 위해 애써 온 분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해인사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또 해인사 내 각 문중들도, 현응 스님이 공의에 따른 투명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어르신들을 잘 보필하고 바른 수행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해인사는 내원암 불사, 동판대장경불사, 신행문화도량 건립 등 대형불사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새

주지 취임에 따라 불사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인사 관계자는 "동판대장경 불사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며, 신행문화도량 건립은 투명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환경연대에서 집행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현응 스님이 차기 주자로 발탁됨에 따라 불사에도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해인사는 현재 주지직 인수인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 주지 스님의 임기는 원래 11월 21일까지지만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주 내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 9월 중순경에는 주지 직선시가 봉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배지선 기자

전국 전통사찰 913곳 문광부 현황자료집 발간

전국 전통사찰현황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관광부가 8월 31일자로 발간한 <전통사찰현황>은 총 321쪽 분량으로 △전통사찰 현황(요약판) △시·도별 전통사찰(상세판) △전통사찰현황 보충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찰명, 소속(종단/주지/성명/건립연대, 건물현황, 토지현황, 연혁·유래, 소장문화재, 등록일 등 전통사찰과 관련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한편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전통

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913곳, 등록된 사찰은 892곳으로 조사됐다. 이중 조계종 소속은 731곳, 태고종은 97곳, 법화종은 22곳, 선학원은 15곳, 대각회는 3곳, 법륜종은 3곳, 보문종은 2곳, 일봉선교종은 2곳, 원효종은 3곳, 기타 12곳으로 나타났다.

남동우 기자

정야·원웅 스님 제적 흥선스님 공권정지 5년

정야(부산 선암사 주지)·원웅 스님(전 서산 간월암 주지)은 제적, 흥선 스님(전 중앙승가대 교수)은 공권정지 5년의 징계가 확정됐으며, 원혜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은 증거조사로 결정됐다.

조계종 제심회계원(원장 원서)은 9월 1일 위원 8명이 전원 참석 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흥선·정야 스님은 부산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돼 '종단 내 중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조심회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다. 원웅 스님은 무단으로 간월암 주지 행사를 한 것과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건 등으로 조심회계원에서 벌인 징계를 받았고, 원혜 스님은 봉은사 보우당 불사와 관련한 공금 유용 건으로 조심회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임시종회 9월 15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제164회 임시중앙종회가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안건으로는 호법부장 등의 의견, 근교구규편 제정의 건,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건, 기타안 건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163명 행자교육 9월 2일부터 송광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9월 2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열고 제27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고불식에는 교육원 임장을 신청한 206명 가운데 임장 갈마를 통과한 남행자 80명 여행자 83명 등 총 163명이 입교했다.

행자교육원에 참가한 행자들은 교육 기간동안 습의예절, 작법, 부처님 생애 등 기본교리를 중심으로 3주간 진행되며 8월 23일 5급 승가 고시를 거쳐 사미(니)를 수계한다.

조용수 기자

신행정수도 '인근'서 불교문화 대중화 정착

조계종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공주로 확정

불교문화 대중화를 선도할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부지가 최근 공주 마곡사 인근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 3만 5천여평으로 확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고 스님은 "절근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부지 선정 최우선 항목으로 봤다"며 8월 31일 이 같이 밝혔다.

또 스님은 "간화선 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정숙성과 자연친화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와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등 경영 재산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

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는 불교문화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영산재, 참선, 발우공양, 다도 등의 무형문화와 사찰 문양이나 음식문화 등의 유형문화를 현대적 이미지에 맞춰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게 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사사령. 노병철, 김강진, 권양희. 2004년 9월 2일

2004 동화사 담선대법회(桐華寺 談禪大法會) -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 제1회 근부불교 시대의 선 사상과 실천(9월 4일) · 진행: 현응스님, 제2회 북중선과 남중선의 사상과 실천(9월 11일) · 진행: 현응스님, 제3회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9월 18일) · 진행: 법인스님, 제4회 조사선의 성립과 수행체계(9월 25일) · 진행: 홍사성, 제5회 간화선의 성립과 선 사상-대해어록을 중심으로(10월 2일) · 진행: 지환스님, 제6회 간화선의 수행체계 - 무문관을 중심으로(10월 9일) · 진행: 해주스님, 제7회 간화선의 수행방법 - 공안참구와 공안공부(10월 16일) · 진행: 영진스님, 제8회 간화선의 수행과 선법의 문제(10월 23일) · 진행: 홍사성, 제9회 간화선 수행의 비파리향 방향(10월 30일) · 진행: 해주스님, 제10회 위빠싸나 수행과 간화선의 비교(11월 6일) · 진행: 법인스님, 제11회 간화선의 본질과 의미(11월 13일) · 진행: 영진스님, 제12회 종합토론 - 간화선과 현대 한국불교(11월 20일) · 진행: 영진스님